

#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일정 확정

9월 8일부터 나흘간  
국립무형유산원 등서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조직위원회는 10일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 2차 회의를 열었다.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김명곤)는 10일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 2차 회의를 열고 2017년 대회 일정을 최종 확정지었다.

조직위에 따르면 2017전주대사습놀이 대회는 오는 9월 8일~11일 국립무형유산원과 한옥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경연운영 및 심사규정 제정을 통해 경연대회의 전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해 나갈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먼저 일반부 참가자격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고등학교 재학생 제외)으로 확대하여 재능 있는 참가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판소리명창부 역시 만 30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인 경우 조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 국제 행사로서의 입지를 다진다.

이와 함께 모든 경연 종목의 심사위원 위촉은 심사위원 추천위원회와 심사위원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운영한다. 심사위원 추천위원회는 심사위원의 5배수 이상으로 심사위원 인력풀을 추천하고, 추천된 인력풀에서 심사위원 선정위원회가 심사위원을 선정하기로 했다.

심사위원은 경연부문별 7명 이내로 하고,

예선과 본선의 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한다. 특히 판소리명창부, 기악부, 무용부의 경우는 반드시 예선과 본선의 심사위원을 다르게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기존에 운영되던 심사회피제를 폐지하는 대신, 심사위원의 직접제 및 6촌 이내 친인척이 출전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 구성 시 해당 심사위원은 완전배제하

기로 하여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경연의 공정성과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사위원 이외에 일반인이 참여하는 청중평가단을 3개 그룹으로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2017년 판소리명창부 본선부터 적용되며, 수상자는 심사위원들의 점수와 청중평가단의 각 그룹별

평균 점수들을 합산한 결과로 결정된다.

한편 조직위는 이번 대회의 전 과정을 관할·기록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는 물론 다음 대회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백서를 제작하기로 하고 이희병 동국대 교수를 백서제작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정해은 기자

소리축제 어린이 미디어 체험 전시  
오늘부터 온라인 입장권 판매 시작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김한)는 어린이 미디어 체험전시 '공짜공짜 알록달록 그려, 나는 미술이다!'의 온라인 입장권 판매를 11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미디어 체험전시 '공짜공짜 알록달록 그려, 나는 미술이다!'는 미디어를 통한 현대 미술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해 보는 소리축제의 특별기획 전시 프로그램.

전시장 3층 전관을 모두 사용할 만큼 전복에서는 보기 드문 초대형 미디어 전시로, 어린이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신기하고 독특한 작품들이 참 매력적이다.

전시는 르 코르뷔지에전, 마크 로스코 전 등 다수의 히트 전시에 참여한 박영훈 교수를 중심으로 7명의 현대미술 작가들이 결합한다.

전시기간은 9월 7일부터 24일까지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장마감 오후 5시) 관람할 수 있다. 생후 36개월 이상부터 입장이 가능하다.

티켓은 1만3,000원으로, 티켓링크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한편 2017 소리축제 전체 유료 공연티켓은 내달 2일부터 구입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 ▶▶ 공연 & 전시 ◀◀

오페라 '나비부인', 오늘 고창문화전당서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고창문화의전당 공연으로 이탈리아 최고 오페라 작곡의 거장 푸치니가 가장 애착을 가졌던 오페라 '나비부인'을 11일 오후 7시 30분에 선보인다.

오페라 '나비부인'은 미국 해군장교와 일본 게이샤의 사랑과 배신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일본에서 실제 사건을 전해들은 미국 작가 존 루더 톰의 소설이 원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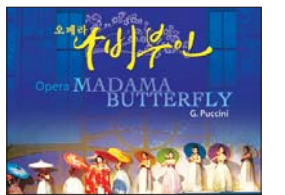
연극으로 먼저 무대에 올려진 '나비부인'은 이탈리아 거장 푸치니를 감동시키며 1904년 2월 17일 밀라노스칼라 극장에서 초연됐다.

작품은 일본 나가사키를 배경으로 나비부인의 비극적인 사랑을 담고 있다. 집안이 몰락해 게이샤가 됐다 미국 해군 중위 핑커톤과 결혼해 이들을 낳은 초초상. 그러나 핑커톤은 일본을 떠나 초초상을 잊고 다른 여인과 결혼한다. 이 사실을 모른 채 3년 동안 오직 그를 기다린 초초상은 핑커톤이 미국인 아내와 함께 나타나 아들을 빼앗으려 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뮤직씨어터수비빙의 주관으로 이뤄지는 이번 공연은, 원작에 충실한 오페라 '나비부인'을 선보이는 것이어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노래와 춤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입체 영상까지 무대에 투영함으로써, 배우 및 무용수들의 연기를 보다 화려하게 연출할 계획이다.

공연의 예술총감독은 이은희 단장이 맡게 되며, 지휘에는 최재영, 안무가 장인숙, 연출가 조승철 등이 제작에 참여하고, 고창문화의전당 공연의 나비부인 역할로는 소프라노 고은영 등이 출연하고, 핑커톤 역은 테너 박진철 등이 출연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 익산 왕궁리 유적 공궐 담장, 오늘부터 일반에 공개

세계유산인 익산 왕궁리 유적(사적 제 408호)의 공궐 담장과 후원 영역이 11일부터 일반에 전면 개방된다.

왕궁리 유적은 백제 무왕(재위 600~640) 때 조성된 공궐터로, 문화재청과 익산시는 유적의 역사적 실체를 밝히고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1989년부터 발굴조사를 시행해왔다.

그동안 공성과 관련된 성벽·전각·정원과 후원·대형화장실 등이 조사되었고, 인장 기와·중국제 자기·연화문 수막새 등 중요 유물이 다수 출토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문화재청은 유물 발굴 이후 공궐과 후원 영역의 정비작업을 마치고 왕궁리 유적 전체를 공개한다.

공궐 담장은 화강석으로 쌓아 올렸으며, 길이는 동서 230m, 남북 495m로 총 1.454km에 달한다.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잔존 높이인 1.2m까지만 담장을 정비했으며, 관람객은 담장과 함께 7개의 문지(門



익산 왕궁리 유적

址)와 수구(水口), 암계배수로 등도 함께 볼 수 있다.

후원은 유적 북동편에 구릉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구릉의 경사면 아래쪽에는

담장과 인접한 폭 2.7~7.2m, 길이 485m의 대형 수로가 동·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구릉 주변의 길고 짧은 6개의 곡수로와 4개의 집수시설은 효율적인 물의 저장

과 배수, 조경 등에 사용됐다.

익산 왕궁리 유적은 2015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후원의 네모난 연못과 구불구불한 물길을 화려한 정원으로 꾸민 조경기법 등은 고대 중국인 당나라와 일본 아스카 시대, 나라 시대의 공궐 정원에서도 엿볼 수 있는 양식이다.

이는 당시 백제인들이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문화적으로 활발히 교류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왕궁리 유적의 전면 개방을 통해 방문객들이 복잡하면서도 정교한 수리체계를 갖춘 백제 시대 후원과 잘 축조한 석축으로 이루어진 공궐 담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 서울대출신 이희종원장,공봉영과장 진료 (비수술치료 및 수술치료)

석정월파크병원에서는 수술 경험이 풍부한 서울대 출신의 정형외과 전문의들과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들이 분야별로 팀을 이루어 정성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 척추질환 치료 및 수술 : 목, 허리
- 관절질환 치료 및 수술 : 무릎, 손목, 발목
- 어깨질환 치료 및 수술: 오십견, 석회화 건염, 충돌증후군
- 인공관절 수술 : 어깨, 고관절, 무릎
- 외상질환 치료 및 수술 : 교통사고, 골절, 스포츠 손상
- 통증질환 미세술: 목, 허리 신경차단 치료, 만성통증 치료

### 서울대 출신 의료진 진료

정형외과 이희종 원장  
정형외과 공봉영 과장

목/허리/어깨/손/무릎/발

석정월파크병원



{ 이희종 원장 }

대표전화 063.560.1000

예약 실 063.560.1179



{ 공봉영 과장 }

창작 무용극 '왕의 순행', 15일 군산예술전당서

창작 무용극 '왕의 순행' (오는 15일 오후 3시 군산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궁중 문화 예술의 꽃, 정재(呈才)의 미가 일품인 창작 무용극 '왕의 순행'이 화려하게 펼쳐진다.

창작 무용극 '왕의 순행'은 전주의 경기전과 전라감영을 배경으로 역사적·예술적 상상력을 토대로 구성했으며, 조선시대 왕궁이 아닌 관아의 뜰에서 행해지는 임금의 순행을 맞이하기 위한 연행(궁중의 잔치)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이번 공연은 연행(宴享)의 꽃인 궁중 정재(呈才)의 화려한 향연이 다섯 가지 작품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지역 문화제이자 조선 태조의 건국이념에 부합하여 창제된 당악 정재양식인 '금척부'를 시작으로 ▲중요 행사에서 차용의 가면을 쓰고 추던 '처용무' ▲승전과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궁중검무' ▲당악정재에 속하는 춤으로 두 틀의 포구문을 놓고 채구를 던져 승부를 가리는 춤인 '포구락' ▲나라의 태평성대와 흥년을 기원하는 '태평무'가 그 화려함을 뽐낼 예정이다.

정진인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아름다운 춤사위를 자랑하는 전북도립국악원 무용단의 공연과 함께 쉽게 만나보기 힘든 궁중의상의 화려함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북도립국악원의 왕의순행은 전석 무료로 금강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 가능하며 당일 현장에서도 공연 한시간전부터 관람권을 배부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군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www.gunsa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김판관 기자

